

보이지 않는 곳에도
사람은 있습니다

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항상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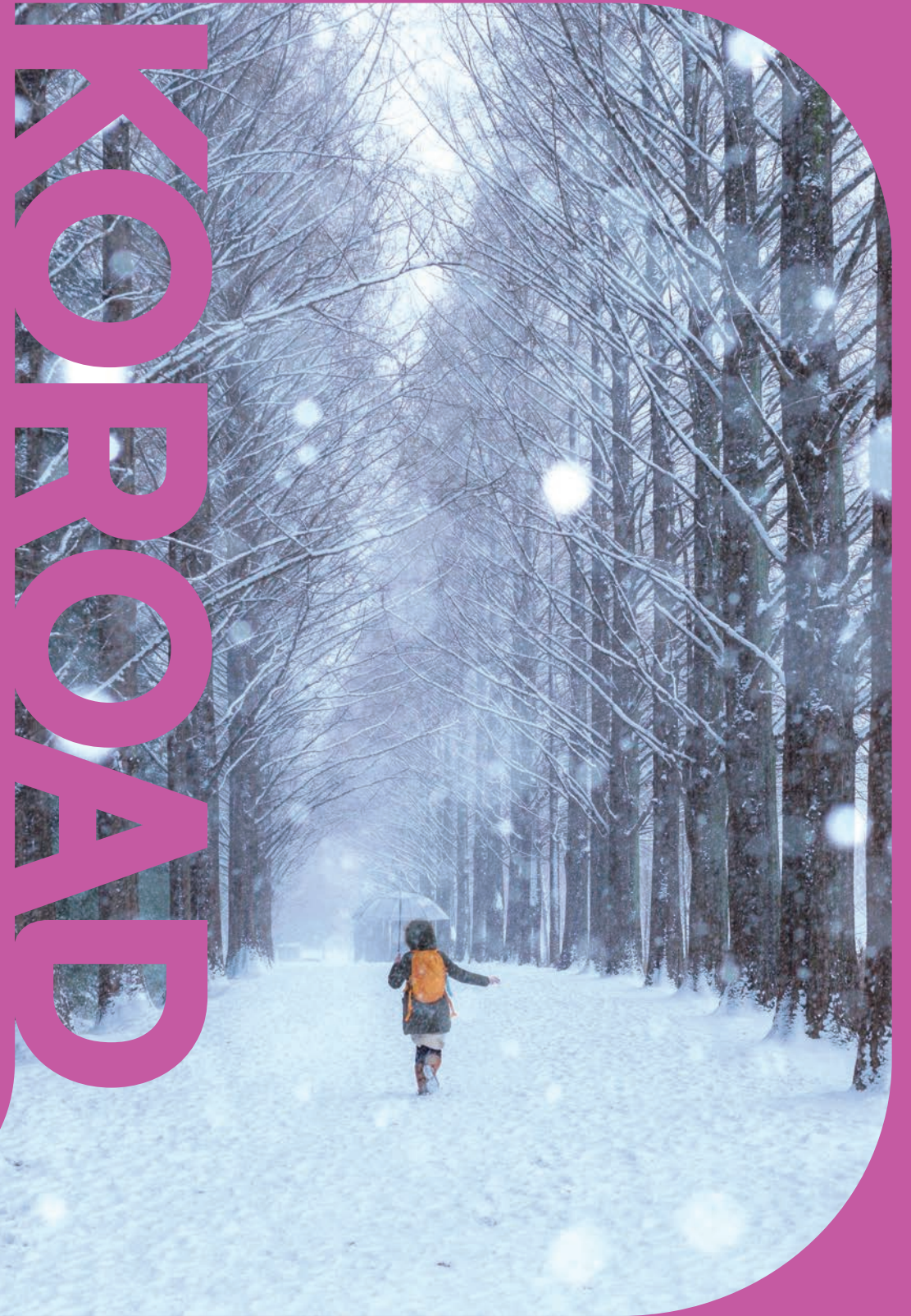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KOROAD BIMONTHLY MAGAZINE

겨울 바

2025 1+2월호 VOL.485

2025 1+2월호
VOL.485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배려의 눈으로

도로 다시 보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눈에 의도를 파악하고 지시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라는 말이었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묻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도로 위에서도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로 위 안전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신호등

포켓뉴스 안내
자주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권 제485호
발행일 2025년 1월 17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창간일 1980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행인 김희중
편집인 엄관식
주소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2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외부 감수 황준승



06 **신년 인사**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

[특집] 도로 다시 보기: 배려의 눈으로

- 08 **약속해요 안전운전**
초보운전,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 12 **사고 보고서**
퇴근길에 물리는 교차로 교통사고
- 14 **신호등 인사이트**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18 **교통안전 퀴즈**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배 - 움 - 길

- 20 **슬기로운 운전 생활**
내 손으로 만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 22 **죄와 벌**
급발진 사고 인정 판례
- 26 **내 차 사용법**
소리로 알아보는 고장 진단
- 28 **미래 도로 설명서**
나날이 발전하는 도로 노면표시
- 32 **호동이 안전툰**
1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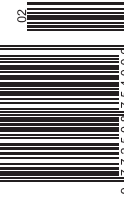
실 - 천 - 길

- 34 **팔도강산 한 바퀴**
이야기가 문학과 예술로 피어나는, 남원
- 40 **지금, 여기**
빨간 동백꽃 따라 드라이브 어때?
- 42 **교통법규 이야기**
세계의 이색 교통법규
- 44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초보운전자를 위한 명쾌한 운전법
- 48 **시선 차이**
앞차와 뒤차의 시선 차이



나 - 눕 - 길

- 50 **KOROAD, CO-ROAD**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점자블록
- 54 **우리집 필라테스**
초보자를 위한 기본 동작 배우기
- 56 **KOROAD 게시판**
- 58 **KOROAD 소식**
- 62 **교통안전 소식**
- 63 **호동이 색칠공부**
- 66 **구독 안내**



9 772508 754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환경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지는 친환경 재생 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국민과 한 약속을 위해 나아갑니다

제17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다. 창립 70주년과 동시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으로 공단의 법적 기반을 다잡았고, 미래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제17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희중 이사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그리는 중이다.

글 편집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호등」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은 공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
했나요?**

2024년은 공단 창립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우리 공단의 100년 경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돼(2월 29일), 교통사고·운전면허 정보와 같은 교통 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교통안전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 시설물 전수조사 및 시설물 개선으로 중대재해 ‘ZERO’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새 출발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올해 공단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난 2024년 12월 23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더 촘촘한 교통정책이 필요합

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말처럼 공단은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안전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교통안전의 주체’로서 의식하고 참여해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공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국민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그 결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각오를 들려주세요.

공단이 만들어갈 2025년은 우리의 노력이 더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더욱 견고히 지키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성과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초보운전,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투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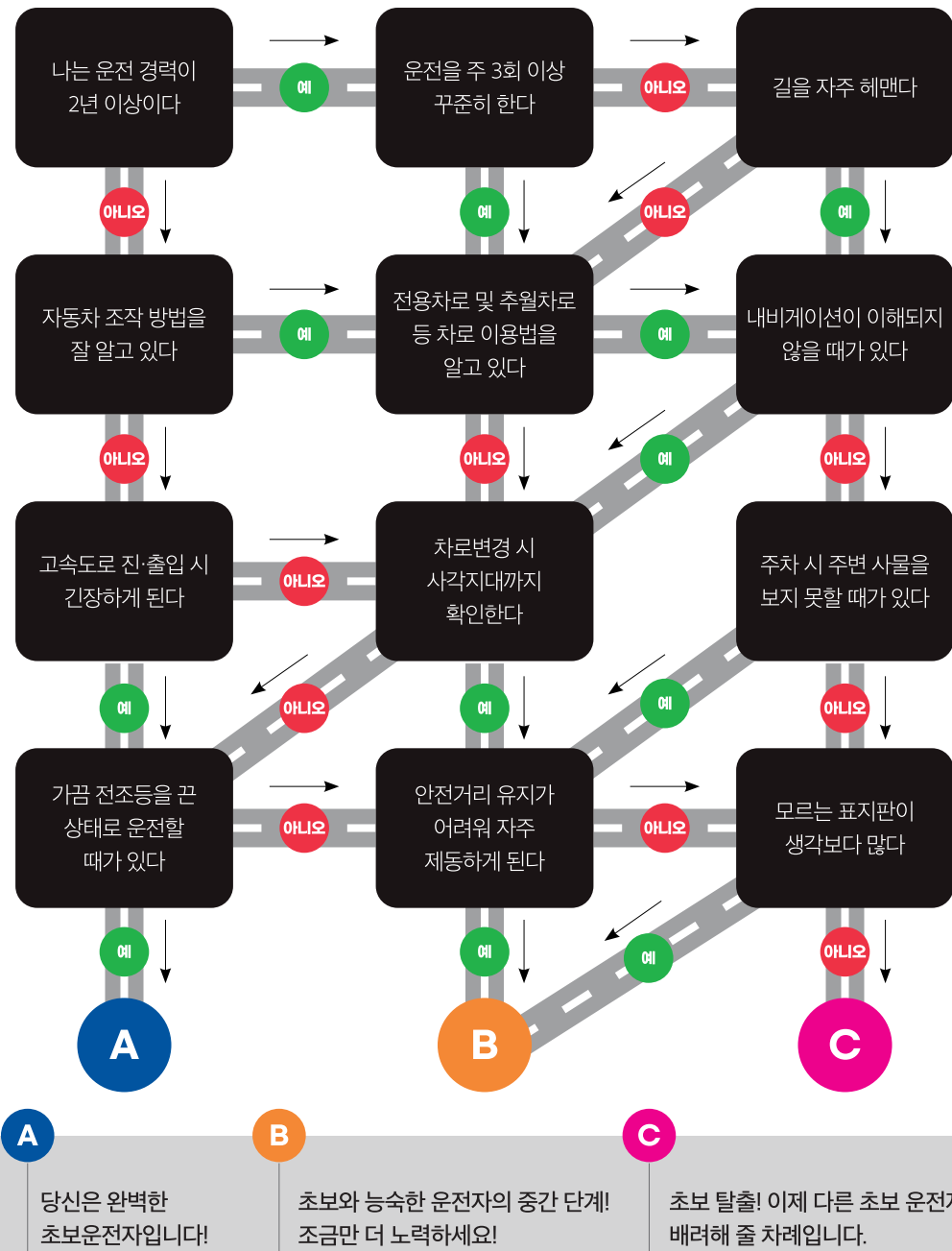
햇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는 금지, 졸음은 휴식

초보운전자 자가 진단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분류하지만
운전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초보운전자라고 부를 수 있다.
과연 나는 초보운전자라 불리지 않을만큼 운전에 익숙할까? 자가 진단으로 확인해 보자.



초보운전자를 위한 교통 상식

햇갈리는 교통안전 표지



노면 고르지 못함

초보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 표지와 자주 햇갈리는 이 표지는 '노면이 고르지 못함'으로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통행 우선

백색 화살표로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다는 표지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통행하는 구간에 설치된다.

초보 탈출 꿀팁

하나, '초보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온라인 교육 듣기
회전교차로, 황색 신호, 차로 변경 등 필요한 정보만 선별했다.
영상으로 배우고 익혀보자.

둘, 2025년 1+2월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44쪽)에서 문제 풀어보기



교통안전 교육 영상 시청하기

초보를 위한 운전 매너 세 가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적절하게 이용하기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로 운영되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다. 따라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다시 정해진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한다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위치 조절하기

어둠이 내리면 전조등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위치가 너무 높을 경우 전방 차량이나 반대편 차량에 눈부심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대 운전자가 전조등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차로 변경하기

운전자라면 차로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기, 둘째는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차로 변경은 차선이 흰색 점선인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 상태에서 주변을 방해하지 않을 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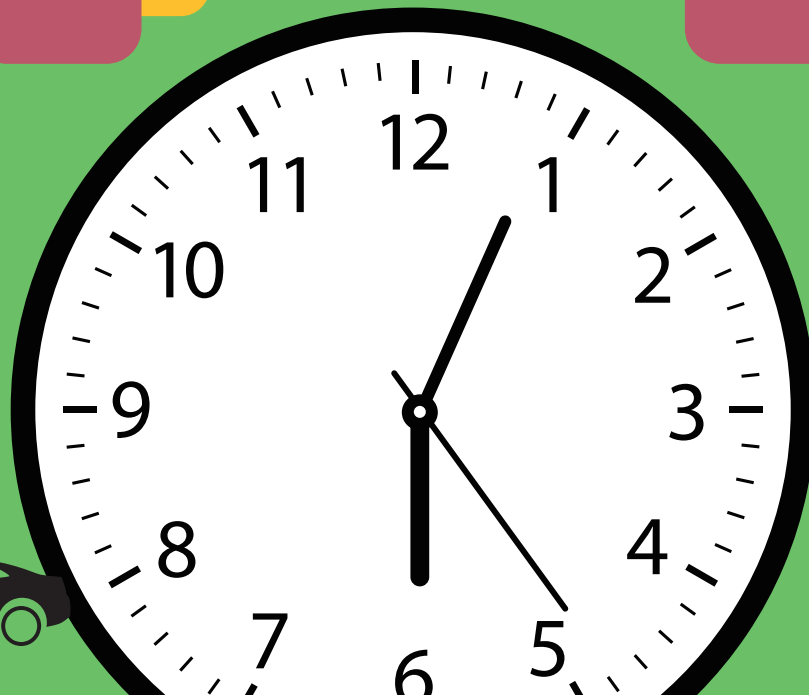
퇴근길에 물리는 교차로 교통사고 배려하면 길이 보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교차로. 복잡한 만큼 사고 위험도 적지 않다.
'내가 먼저'가 아닌 '나부터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교차로 사고 현황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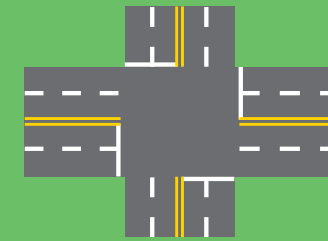
글: 편집실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차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6~8시**
13,389건



2023년 교차로 사고 현황



교차로
48.3%

2023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198,296건. 그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5,769건으로 전체의 48.3%에 달한다. 교차로(횡단보도 부근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로 864명이 사망, 137,2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사고 과반이 교차로에서 발생



이륜차
53.1%

2023년 이륜차사고는 전체 16,567건이며 이중 8,795건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건수 최다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사고 11,060건!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은?

-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한다.(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
- ②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 ③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좌회전한다.
- ④ 규정에 따라 회전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는 차가 있을 때,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 ⑤ 신호등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더라도 교차로 상황에 따라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땐 진입하지 않는다.
- ⑥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차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를 걷는 것도 사람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퍼진다면,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이다. 결빙 교통사고 역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난원인조사반' 반장을 맡은 이수범 교수를 만났다.

글 정자은 사진 남윤중(studio51)

결빙 교통사고의 심각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추운 겨울, 운전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의 경우 연쇄 추돌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번 재난원인조사반의 반장을 맡으며, 중앙부처 과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의 전문가를 이끈다.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인 사람들
이수범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은 결빙 사고가 빈발하는 터널과 교량을 중심으로 기존 법과 제도, 해외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2025년 1월까지 사고 재발과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2024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조사반은 2주에 1번씩 모인다. 전체 회의를 진행





하고, 결빙 사고가 빈번했던 현장을 찾아가 함께 조사한다.

“재난원인조사반의 역할은 결빙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예산이 안 맞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더 수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기상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재난원인조사반이 중간에서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겨울철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 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조사반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 동안의 데이터와 기상 관련 센서 등을 활용해 사전에 예측 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재난안전조사반 반장을 맡고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중간에서 소통과 조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와 노면의 온도, 도로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력과 소통으로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내고 싶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잘 생기는 도로, 사전 파악과 주의가 관건

결빙 사고 예방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도로 위 살얼음 발생을 미리 감지해 염화칼슘을 뿌린다. 소극적인 방안은 도로 살얼음이 생길 장소를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도로 살얼음이 잘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산허리를 끼고 도는 도로에서 남쪽에 산이 있다거나, 도로가 항상 북쪽이라 햇빛이 잘 안 드는 음지인 경우에 잘 생깁니다. 교량 위에도 살얼음이 빈번한데, 교량은 밑에 땅이 없어 바깥 온도에 예민하거든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비나 눈이 내린 후 고인 물이 빨리 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하는 결빙위험구간 기준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얼음이 얼면 차를 제어하기 힘들다. 운전자

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차의 방향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질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조사반은 이번 겨울 결빙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국은 계절 특성상, 눈이 자주 내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매년 겨울마다 결빙 사고를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날씨 예측이 늘 맞을 순 없으니,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린 후에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선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회적 공감대

이수범 교수는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운전자가 자각하기까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동안 국내 사회적 분위기는



‘차가 먼저 가야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발전 속도가 워낙 빨랐던 과거, 교통문화 수준은 비슷하게 발전할 시간이 모자랐다. 이제는 서서히 ‘사람이 우선이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도 증가하고, 눈에 잘 띄게 변화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도 과거 데이터를 수렴해 개선해 나가는 실정이다. 사고분석 전문가로서 그는 국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할까.

“사고의 원인은 사람과 차량, 그다음은 도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사람인데요. 사람이 80~90% 정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조심하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로봇이 아니니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튀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하나의 요소가 연결돼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그는 교통안전 의식이라는 자체가 특별할 게 없다고 강조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교통안전 의식인 것이다. 자신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통문화는 시작된다. 서로 양보한다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OECD에서 거의 꼴찌였다가 조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1년에 약 2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저히 감소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차끼리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은 차와 사람이 부딪쳐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된다면 교통안전 문제는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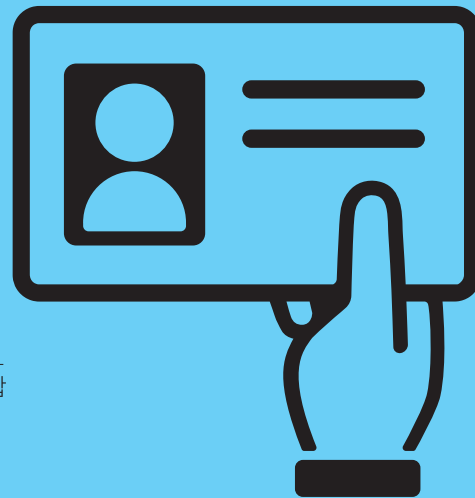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 ①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 ② 제1종 구난차면허
- ③ 제1종 보통면허
- ④ 제2종 보통면허

도움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①, ②, ④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가능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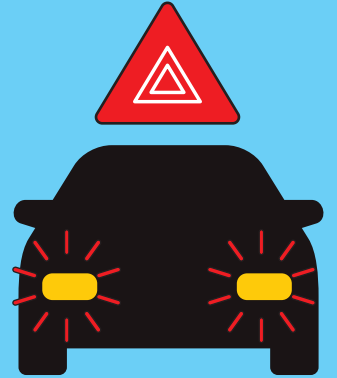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2.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 ①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② 이미 진입했으므로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 ③ 비상점멸등을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해 빠져나온다.
- ④ 진입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하여 돌아 나온다.

도움말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경우 다음 출구까지 주행한 후 빠져나온다.



Q3. 겨울철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

- ①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 ② 아스팔트 표면의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뒤섞여 스며든 뒤 겹게 얼어붙은 현상이다.
- ③ 추운 겨울에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등 온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 ④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 도로의 검은 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도움말

노면의 결빙현상의 하나로, 블랙 아이스(black ice) 또는 클리어 아이스(Clear ice)로 표현되며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아스팔트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엉켜 스며든 뒤 겹게 얼어붙는 현상을 포함한다. 추운 겨울에 다리 위, 터널의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한다.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학과시험 변천사 내 손으로 만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관문 학과시험.
그동안 학과시험이 어떻게 변모해 왔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시험처

학과시험의 역사

현재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7개 운전면허센터에서 컴퓨터로 치르고 시험 종료와 동시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가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생애 처음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입장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 “합격 발표는 얼마나 걸리냐” 등을 물어 보시는데, 아마도 그분들은 지금처럼 학과시험이 컴퓨터화되기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들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컴퓨터 학과시험은 2002년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순차 확대하여 2010년에 이르러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끝낸 응시자는 학과시험장에 빈자리가 있으면 입장해서 터치 스크린 컴퓨터로 시험을 치며 종료 후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응시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입장해서 종이 문제지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카드 답안지를 작성했다.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채점하는 동안의 긴장되고 초

조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전광판을 통해 수험번호와 점수가 발표되고, 가끔 100점 합격자가 나오면 전체 응시자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요즘이야 불합격하면 바로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수료가 급증했던 1980년대에는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접수 후 몇 달 씩 기다려야 하는 건 보통이었고 학과 합격 후 기능시험에 응시할 날짜를 지금처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몇 달 후로 지정해 주어야만 했던 적도 있었다.



현재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총 1,800개의 문제은행 안에서 무작위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문제은행이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는 물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및 비문해자를 위한 읽어주는 학과시험 문제은행도 함께 공개되어 있다.

학과시험은 누가 만들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나 매년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개편한다. 운전면허 관련 전문가,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이 직접 출제하거나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제안한 문제도 학과시험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 학과시험 문제 국민 참여 공모전은?

더 많은 국민이 문제은행 공모로 교통안전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에도 학과시험 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3월~6월 정도로 예상하며, 총상금 300만 원, 교통안전 관련 모든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입상자들의 소감

2024년 최우수상 수상자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관련 자료를 얻고자 홈페이지에 방문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등 제도를 사전에 알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단을 칭찬하고 싶다.”

2024년 우수상 수상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교통 관련 내용을 문제로 내서 다른 사람들도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다면 교통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고 도전하게 되었다. 내가 제출한 문제가 전 국민이 응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출제된다면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입상까지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확인하기

급발진 사고 인정 판례

그 차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근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데다 운전 미숙이 원인인 경우도 많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A 씨의 사연을 들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봄날의 여행을 꿈꾸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영숙(가명)과 병주(가명)는 오랜만에 설레는 여행을 계획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에 부부의 마음은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잎처럼 흔들렸다.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영숙과 병주는 자녀인 명진(가명)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엄마, 장거리 운전은 오랜만이지 않아요? 사전에 점검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 길로 명진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았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행을 할 예정이라서요. 사전에 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내일까지 정비 마쳐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명진은 부모님의 여행길이 더 쾌적하길 바라며 기분 좋게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날, 정비를 마친 자동차가 부부의 집에 도착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이제 다 준비됐네!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거니까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다.”

“그래요. 나는 빠뜨린 거 없나 확인만 하고 갈게요. 먼저 자요.”

설레는 여행 전날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마지막이 된 여행길

드디어 여행 당일 날이 밝았다. 간식과 가벼운 짐을 챙긴 부부는 자동차에 연료까지 가득 채우고 여행길에 올랐다. 창밖에 펼쳐진 풍경까지 완벽한 날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영숙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때였다.

“어? 이게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영숙이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를 갓길 쪽으로 빼기 시작했다.

“왜 그래?”

“모르겠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고, 차가 갑자기 빨라져요!”

황-

갓길 위에서 빠르게 달리던 부부의 차는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호 난간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다. 명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모님은 생을 마감한 뒤였다. 명진을 포함한 형제들에겐 부모님과의 작별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명진은 과태료 한 번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해 오던 부모님이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도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명백한 급발진 사고잖아. 사전 점검까지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명진과 형제들의 슬픔은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체를 향한 분노로 바뀌어 갔다. 결국

명진은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큰 회사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제조사를 면책, 또 ‘정비과실이 없다’라며

정비업자들도 면책시켰다.



부모님께 전하는 소식

“말도 안 돼!”

차량 결함이나 정비 소홀을 밝히지 않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 산소도

갈 수 없었다. 제조사와 정비소는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결국 항소를하기로 한 명진은 비장한 마음으로 2심 재판을 준비했다.

“사고를 피하려고 갓길로 주행한 데다 비상등을 켜서 이상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알렸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의 운전 미숙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2심에서는 분명 이 사실을 알아줄 거야.”

2심 판결 당일. 명진의 가족은 모두 법원으로 향했다. 명진은 혹시라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과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지난한 공방이 이어졌다. 준비한 증거 자료와 서류를 검토하며 판사들도 치열하게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감정인도 두 명이나 투입됐다. 차량과 사고를 제대로 감정하는

일이 이런 사망사고에서는 중요하다고, 판사도 말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간의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인 2인에 대한 각 감정결과와 변론 전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자동차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판사는 결론부터 명쾌히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알 수 있으므로

어떤 결함이 존재했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여부를 일반인이 밝히긴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사는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사는 말을 이어 갔다.

“피고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주장했지만 사건의

자동차가 비상 경고등이 작동된 채로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속 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자동차 제조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탕탕탕-

판결문을 들은 명진과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비록 판사가 정비업자들의

과실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망 원인이 차량결함 때문인 것이 밝혀진 것만 해도

속이 후련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 이제야 얼굴 들고 뵈러 갈 수 있겠어.”

* 경험칙이란 사실판단의 법칙,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닌 사실판단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법칙이다.



이 이야기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부부의 자녀들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1. 선고 2019나45406 손해배상(기)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2018가단5211948)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4천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리로 알아보는 고장 진단

자동차가 보내는 신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리는 소리의 여러가지 원인

글 김태영(자동차 저널리스트)

인간은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예컨대 매일 신는 신발도 바닥 쪽에 작은 돌이

박히거나, 이물질이 붙었을 때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점을 찾을 때 대단히 효과적이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조군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수정한다. 개발 중인 신차를 기존에 출시한 완성차,

혹은 경쟁 자동차와 번갈아 타보면서 데이터로는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도 달라진 소리나 느낌을 통해서 고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엔진 시동, ‘끼리리리~’

자동차 엔진 시동을 걸 때는 스타트 모터가 회전하면서 실린더를 강제로 구동시킨다. 스타트 모터는 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작동해서 배터리 컨디션에 따라 시동 소리가 달라진다. 보통은 ‘끼리리~’하고 곧바로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끼리리리리~’하고 평소보다 스타트 모터 소리가 길어진다면 배터리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다.

#2 에어컨 사용, ‘깁~깁~’

엔진은 팬벨트라는 동력 장치로 발전기, 공조 장치, 전동식 조향 장치에 동력을 전달한다. 팬벨트는 고무 재질의 벨트로 도르래처럼 여러 바퀴에 맞물려 돌아간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딱딱하게 경화되거나 장력이 느슨해진다. 팬벨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엔진룸에서 ‘깁~깁~’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언덕 주행이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면 팬벨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3 속도를 높이면, ‘웅~웅~웅~’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높아지면 바람 소리나 타이어 구동 소음이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속도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웅~웅~’ 거리는 소리가 하체에서 심하게 들린다면 타이어 혹은 허브 베어링*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타이어는 지면과 닿는 타이어 고무(컴파운드)가 권장 기준 이하로 닳아서 소음을 발생시킨다. 허브 베어링은 윤활유 부족으로 안쪽 볼 베어링**에 유격이 생겨서 소음이 증가하게 된다.

#4 요철을 넘을 때, ‘찌그덕~’

과속 방지턱이나 지하 주차장 회전 램프를 진입할 때 자동차 하체 앞/뒤에서 ‘찌그덕~’하는 소리가 주

기적으로 난다면 서스펜션 계통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서스펜션은 노면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과 스프링의 반발력을 제어하는 완충 장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스프링에 심하게 녹이 슬거나 완충 장치(댐퍼) 내부의 오일 압력이 비정상적일 때 소음이 발생한다.

#5 와이퍼 작동, ‘끼익~덜덜덜~’

비가 내리는 날이나 자동차 앞/뒤 유리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와이퍼와 유리가 닿는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있어서 최소 6개월~최대 1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와이퍼가 작동하면서 ‘끼익~’하는 마찰 소리가 발생하거나 ‘덜~덜~’ 거리면서 움직임이 떨리면 교체가 필요하다.

#6 창문 작동, ‘끼익~’

오래된 자동차는 창문이 올라가면서 고무 패킹(실)과 마찰하거나 모터 구동과 연결된 롤러, 레일 등의 문제로 소음이 발생한다. 보통 창문이 닫히기 직전에 작게 ‘끼익~’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 경화된 고무 패킹(실)은 전용 윤활제를 발라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7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씩~씩~끼익~’

자동차 브레이크가 구동축과 연결된 회전체(로터)를 패드로 눌러 마찰하면서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브레이크 패드가 정상 범위 이하로 닳았다면 구동축에서 ‘씩~씩~’ 혹은 ‘끼익~’거리는 쇠 소음이 발생한다. 일부 고성능 스포츠카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패드는 철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끼익~’하는 소음이 자연스럽게 나기도 한다.

#8 운전대를 돌릴 때, ‘뚝!’

교차로에서 유턴할 때 운전대를 한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뚝!’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다. 조향축에 연결된 유니버설 조인트에 유격이 발생했거나 조향 기어에 윤활 물질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다. 엔진을 고정하는 부위나 서스펜션 계통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가 날 때 전문가의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허브 베어링: 차량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

** 볼 베어링: 움직이는 두 기계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는 부품



도로에는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 노면표시가 설치된다.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만큼 도로 이용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비가 오거나 해가 진 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도로 노면표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 출처: 서울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수 박신행(서울시립대 교수)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

어두운 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비까지 내리면 빗물에 빛이 반사되면서 차선이나 노면표시는 더욱 보이지 않게 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노면표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 운전자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차선이다.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 도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중요한 이유다.

기존에는 차선을 색칠할 때 유리알을 포함한 도로를 사용했다. 도로에 포함된 유리알이 빛을 반사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알이 마모되고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도로에 수막이 형성돼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최근에는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시인성을 높인 도로 개발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교통 신기술 47호로 '상온경화*형 도로*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공법'을 지정했다. 기술에 사용되는 도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와 접착력이 우수하고 살포용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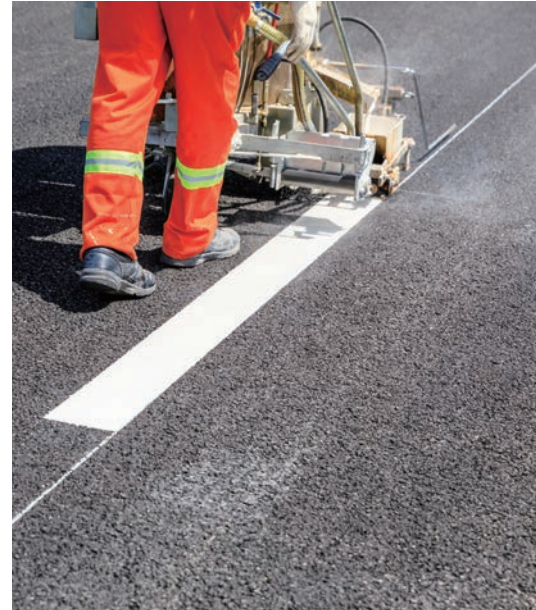


리알과의 부착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성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없어 시공 이후에도 성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원모양 돌기형 기계 장비로 살포하면 기존에 밋밋했던 차선이 원형 돌기형으로 구현돼 우천 시 보다 높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린 날도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차량 미끄럼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공사 시간 또한 기존 기술 대비 50%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새로운 포장 기법을 개발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시인성과 내구성을 높인 '컬러 아스팔트 포

장 공법'을 건설 신기술 제998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버스전용차로 등에서 활용될 이번 기술은 안진하이테크(주)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에 서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사고가 9배 높아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표시가 중요하지만, 기존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탈·변색 문제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저하돼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천연 유색광물인 적토 이암을 활용해 친환경 유색 굵은 골재를 만들어 아스팔트 혼합물에 섞는 방법으로 시인성을 높였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직선구간 180m 구간에 활용됐으며 기존 기술 대비 수명이 3배가량 높아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최대 45%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존 기술보다 눈의 피로 저항성이 최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인성을 높인 노면표지의 효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인성이 떨어진 차선을 최근 개발된 고성능 차선으로 다시 칠한다고 밝혔다. 반사 성능이 높은 유리알을 차선 도색용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 기존 차선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관내 차선 총 7,216km 중 약 16%에 달하는 1,174km를 고성능 차선으로 다시 칠했으며, 이중 교통량·강수량 등 지역 특성이 다른 6곳의 174km 차선에는 고성능 차선과 함께 각기 장점이 다른 차선 신기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현장 적용성 검증까지 마쳤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검증한 고성능 차선 공법은 우천형 유리알·비정형 돌출차선·차선 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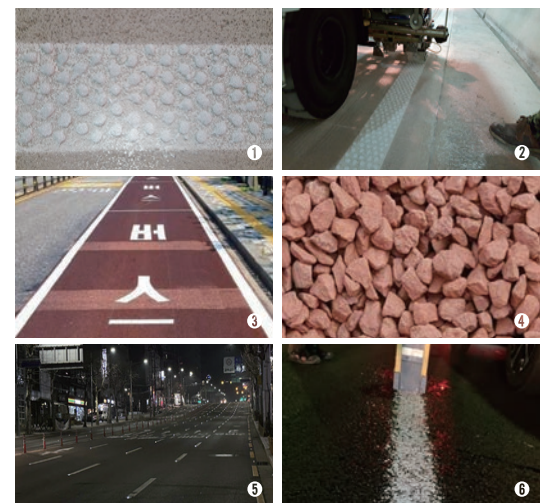
등이다.

서초동·상계동·홍은동·동교동에선 점선인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엘이디(LED) '도로표지 병'을 설치해 차선의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물에 잠겨도 표지 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운전자가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의도동에는 표면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어 차선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돌출차선'과 재료 특성상 반사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 속도가 빨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선 테이프' 등이 적용된다.

구의동에는 일반 유리알보다 반사 성능이 좋은 '우천형 유리알'을 일정 비율 이상 차선용 페인트에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고성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보다 고가지만, 반사 성능이 좋아 비 오는 날에도 차선이 눈에 잘 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교통 신기술 47호 시공 후 모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② 교통 신기술 47호 시공 전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③ 컬러 아스팔트 포장 공법 시공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④ 적토 이암 천연골재 자료 사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⑤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과 고성능 차선 시공 사례 ©서울시청
- ⑥ 서울시 돌출차선 시공 사례 ©서울시청



토막 상식

'상온경화'란 액체가 수화·산화·중합 등의 화학 변화 또는 건조 등의 물리 변화에 의해서 유동성을 잃어 강성이나 강도가 증가해 가는 과정, 시멘트에서는 응결에 이어서 생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료'는 페인트나 에나멜과 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여 고체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칭합니다.



1화



권상민 작가와 함께하는

안전툰

글·그림 권상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이야기가

문학과

예술로

피어나는,

남원

남원은 다양한 이야기가 문학과 예술로 피어나는 도시다. 대하소설 <혼불>의 궤적을 따라 구 서도역과 혼불문학관에 닿고,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실감나게 만날 수 있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는 그림과 문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도 누릴 수 있다. 문학과 예술 향기가 배어 있는 도시,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정겨운 남원으로 떠나 본다.

글 송지유 사진 남윤중(studio51)

<훈불>과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지

‘구 서도역&훈불문학관’

문학의 도시 남원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구 서도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매안 이씨 집안을 둘러싼 가족사를 담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훈불>의 배경이 된 곳이다.

구 서도역에 도착하니 평화로운 풍경과 오래된 역사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1932년에 조성된 전라선 구 서도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며, 기차가 끊긴 폐역이 되었지만 과거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해 남원의 숨은 보석 10선에 선정됐다. 현재는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으로 드라마와 영화

속 배경지로 사랑받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애기씨와 구동매가 만나는 장면 등 여러 이야기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대합실에 들어서니 그 시절 기차역의 이야기가 사 진으로 펼쳐지고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역사 옆으로 소설 <훈불>의 내용을 표현한 정크 아트 길도 이어져 소설 속 내용을 되짚어 볼 수 있다. 밖으로 나서자 낡은 철길과 양쪽으로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어우러져 빗어낸 이국적인 풍경에 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문득 저 멀리서 힘차게 달려오는 기차와 그 기차를 기다리는 옛 사람들의 모습이 아스라이 흠어져 간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구 서도역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2

☎ 063-634-6165

P 주차: 무료

훈불문학관

●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

☎ 063-620-5744~46

P 주차: 무료

춘향테마파크

●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

☎ 063-620-6180

P 주차: 무료



훈불문학관

구 서도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훈불문학관’으로 향한다. 최명희 작가의 작품과 생애를 기리는 훈불문학관이 세워진 노봉훈불문학마을은 바로 소설 <훈불>의 배경지다.

돌계단을 오르면 넓은 잔디밭과 한옥으로 지어진 문학관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다. 안으로 들어서니 문학관 곳곳에서 작가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집필실에는 작품 일지와 만년필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펼쳐진 육필 원고에서는 17년 간 훈을 담아 작품을 써 내려간 작가의 숨결이 느껴져 숙연해진다.

사랑 이야기 ‘춘향테마파크’, 미술과 문학의 공존 ‘남원시립김병종시립미술관’

<춘향전>의 고향 남원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춘향테마파크로 발길을 옮겨본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과 드라마 <쾌걸춘향> 촬영 장소를 포함해

<춘향전>의 이야기를 5개 사랑의 테마로 조성한 복합문화공원이다.

처음 ‘만남의 장’을 지나 ‘맹약의 장’에서는 옥지환을 통과해 천년의 사랑을 맹세할 수 있다. ‘사랑과 이별의 장’은 영화 <춘향뎐>의 촬영지로 춘향이 생활한 부용당과 월매집, 공방 등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시련의 장’에서는 춘향의 옥중 생활과 몽룡과의 재회가 재현되고, ‘축제의 장’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며 축제가 펼쳐진다.

각각의 테마를 따라 공원을 둘러보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춘향전>의 장면 장면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재현된 인물들의 표정을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춘향테마파크 내에 숲으로 둘러싸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도 매력적인 공간이다. 남원 출신이자 독창적인 기법과 화풍으로 유명한 김병종 작가의 작품 기증을 바탕으로 건립됐다.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자연을 존경하고 지킨다는 의미로, 지리산을 향해 경배하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독특하고 유려한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대적인 감각의 전경과 계단식 물의 정원에 우뚝 선 소나무와 구름이 비치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한폭의 그림이다. 갤러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통창 또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액자가 된다.

미술관에서는 김병중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화첩기행> 등을 쓴 화가이자 문학인인 김병중 작가가 기증한 문학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미술과 문학이 공존하는 공간도 만끽할 수 있다.



춘향테마파크

은하수 흐르는 사랑의 정원 '광한루원'

마지막으로 광한루원에 들어서니 성춘향과 이몽룡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반긴다. 광한루원은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이다. 정문에는 김충현이 쓴 '청허부'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옥황상제가 사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 063-620-5660
 🅑 주차: 무료

광한루원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063-620-8907
 🅑 주차: 승용차 2,000원(당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달나라 옥경을 '광한청허부'라 칭하고 지상에 작은 우주로 건설한 곳이 광한루원이라고 한다. 춘향을 만나러 작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본다. 제일 먼저 달나라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완월정'을 지나 신선들이 사는 하늘나라 월궁인 '광한루'를 만난다. 그 앞에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놓았다. 호수 가운데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 속 삼신산을 조성하고 섬마다 작은 정자를 앉히고 대나무 등을 심어 운치를 더했다. 섬과 섬을 잇는 작은 나무다리 위에 서니,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광한루와 호수와 삼신산, 오작교가 서로 어우러진 풍경에 탄성이 터져 나온다. 오작교를 건너 쪽 걸으면 춘향과 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부용당'과 '월매집'이 초가집으로 앉아있다. 춘향의 영정이 있는 '춘향사당', 춘향이 타던 그네까지 돌아보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하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광한루원은 커다란 보름달 등 아름다운 조명이 빛나는 밤이면 더욱 신비한 모습을 드러낸다.

질곡의 시대를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시대와 계급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도 문학과 예술로 승화시킨 도시, 남원 여행은 그윽한 향기와 이야기에 빠져드는 즐거움이 가득한 여정이다.



광한루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최영배 남원지부장이 추천하는 기사식당



오거리식당

소박한 집밥을 먹고 싶다면 오거리식당이 제격이다. 조기, 갈치, 동태, 고등어 등 각종 찌개는 양념이 잘 스며들어 맛이 좋고, 소박한 반찬들 또한 집에서 먹는 밥상처럼 정겹고 푸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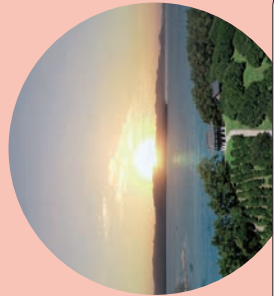
📍 전북 남원시 충정로 128 ☎ 063-625-1262



부부식당

남원의 대표적인 음식인 추어탕을 비롯해 미꾸라지 숙회, 미꾸라지 튀김같은 흔치 않은 요리도 맛볼 수 있다. 각종 찌개 등 식사 메뉴도 정성이 느껴지는 맛을 즐길 수 있다.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61 ☎ 063-626-3508



① 마량리 동백나무숲

천연기념물 제169호. 바닷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언덕 동쪽에 80여 그루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룬다. 언덕마루에 세워진 동백정에 올라서 바라보는 일몰로도 유명하다.

●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48



③ 백련사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백련사의 동백숲엔 1천 5백여 그루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관리된다.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② 선운사

천연기념물 184호. 백제 위덕왕 24년에 세워진 선운사 대웅전 뒤 돌의 동백나무 숲. 선운사에서는 4월까지도 동백꽃이 피어있다.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④ 장흥 목촌리 동백림

전남 문화유산자료. 조선시대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하천을 따라 조성된 역사 깊은 장소. 총 143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점정리 산60-1



⑤ 오동도

섬 전체가 3천여 그루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다. 동백꽃 전망대나 동백열차를 이용하면 동백의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 전남 여수시 수정동 산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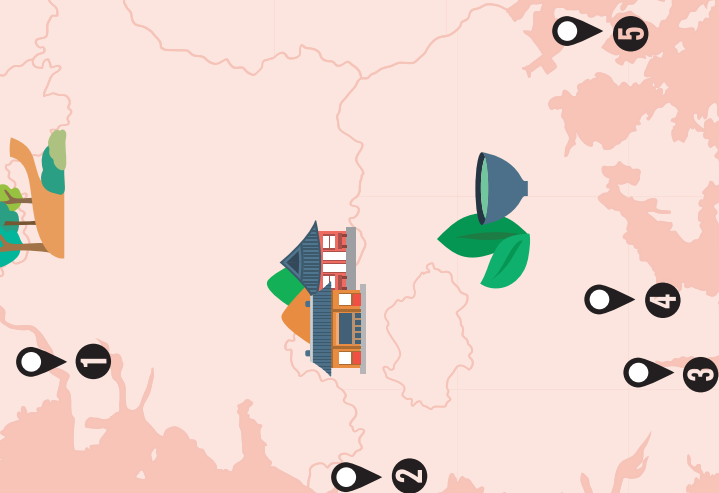


혹독한 추위 속에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동백꽃은 새해 희망을 알리는 태양처럼 발갛게 올라 이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지금, 여기

빨간 동백꽃 따라 드라이브 어때?



⑥ 카멜리아힐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 수목원으로 손꼽히는 곳. 토종 동백부터 야기 동백, 유럽동백 등 80여 개국 500여 품종의 동백을 만날 수 있다. 포토존이 다양하게 꾸며진 것이 특징.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⑥ 장사도 해상공원 까멜리아

천연자연환경을 최대한 간직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해상공원. 겨울엔 동백이, 여름엔 수국이 뒤덮이는 섬이다.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길 95



⑦ 지심도

수목 70%가 동백으로 채워진 이 곳은 2월에 방문하면 동백으로 뒤덮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섬이지만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⑧ 동백섬

섬이었지만 자연적으로 육지에 붙게 된 육계도. 겨울부터 봄까지 동백꽃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으며 해운대를 바라보는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 기념물 제46호다.

● 부산 해운대구 우동 710-1

해외 여행 시 필독! 세계의 이색 교통법규

법에는 해당 국가의 문화가 녹아있기 마련.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교통법규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문화를 읽어본다.

글 편집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Servicepublic.fr(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안경 착용자는 여분 안경 준비

스페인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여분 안경을 차량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운전 중 안경이 부러질 것을 대비해 상시 준비해야 한다는 법규이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회용 음주측정기 차내 비치 의무화

프랑스 내무부 교통안전국은 2012년 7월부터 프랑스 국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1회용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프랑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1회용 '음주 측정 간이 키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11월부터는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 적발 시 11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스웨덴

신발 안 신으면 보험 처리 불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독일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주행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신발을 꼭 신고 운전해야 한다. 발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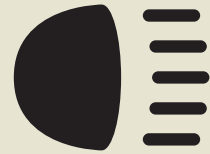
프랑스



스위스

밤낮 구분 없이 전조등 끄면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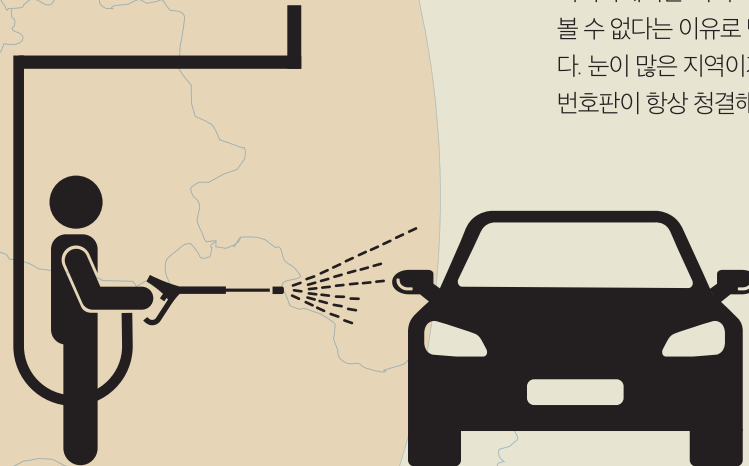
스웨덴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전조등을 켜야 한다. 24시간 밤이 지속되는 극야 현상에 대비해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운전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러시아

세차하지 않아 더러우면 불법

러시아에서는 차가 더러워지면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될 시 벌금을 매긴다. 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차량과 번호판이 항상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국

상의 탈의 운전 금지

태국에서는 상의를 입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태국 정부가 상의 탈의 자체를 매너 없는 행동으로 지정하고 법규를 만들었기 때문. 태국의 전통 이동수단인 툭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상의 착용은 필수다.

일요일 세차는 불법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에 세차를 하면 불법이다.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라는 뜻으로 생긴 법률이라고 한다. 일요일에 세차를 해도 경찰이 실제 단속하는 경우는 없지만, 가족과의 시간과 휴식을 중시하는 스위스의 문화가 돋보이는 법률이다.

초보운전자를 위한 명쾌한 운전법

이렇게 하면 초보운전 탈출!

경험이 적은 초보운전자를 위해 준비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상식을 확인하며 초보운전 탈출에 도전해 보자.

글 편집실 출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 KOROAD

Q ≡

초보운전자가 잘 모르는 운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초보운전자가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난 교통법규 항목입니다. 이 중 내가 잘 아는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취약 항목	초보운전자 인지율
악천후 시 감속 운행	55.5%
좁은 폭 도로에서 대향* 방향 차에 진로 양보	45.0%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 순위	42.6%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사용	50.2%
경사진 곳에서 정차·주차 시 준수사항	56.0%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나란히 통행 금지	43.4%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차로 좌회전 방법	40.4%
주정차금지선(3종)	46.4%
안전지대	53.1%
정차금지지대	44.0%

토막
상식

‘대향’은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을 뜻합니다.
‘대향차’는 외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를 의미합니다.



← KOROAD

Q ≡

얼마나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빈칸을 채워보고 46쪽 아래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 보세요.

악천후 시 감속 운행

❶ 비나 눈이 올 때는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에서 []~50% [] 운행해야 한다.

좁은 폭 도로에서 대향 방향 차에 진로 양보

❷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끼리 마주보고 진행할 때, 비탈길에서는 ‘[]가는 차량에게 양보’, 비탈길이 아닌 곳에서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실지 않은 차량이 []’해야 한다.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❸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를 갖는 차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폭이 []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차’,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이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사용

❹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 방향지시등을, 나올 때는 []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사진 곳에서 정차·주차 시 준수사항

❺ 경사로에 주정차할 경우 미끄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을 설치하거나 운전대를 도로 []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나란히 통행 금지

⑥ 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2대 이상이 나란히 한 차도를 통행하면 안 된다.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교차로 좌회전 방법

⑦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는 교차로 좌회전할 경우 교차로 신호에 따라 가지 않고 도로 를 따라 교차로 끝까지 직진 후 좌회전해야 한다.

주정차금지선(3종)

⑧ ‘노란색 실선’, ‘ 이중선(복선)’, 소화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빨간 실선’, 등 주정차금지선에서는 1초라도 멈춰있으면 안 된다.

안전지대

⑨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므로 는 들어갈 수 없다.

정차금지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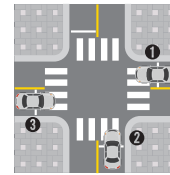
⑩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차금지지대는 해당 지점에서 를 금지한다는 표시이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그림과 함께 더 깊이 알아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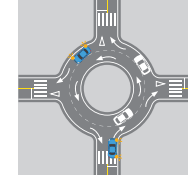
초보운전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교통안전 법규.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억해 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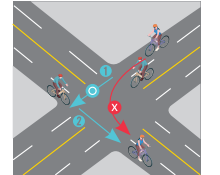
같은 폭 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순위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가 없을 땐 무조건
1차로 1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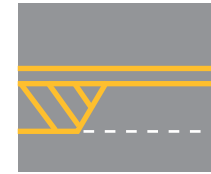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
지시등 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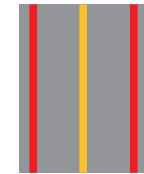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직진신호에 따라 두 번
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
(훅턴, Hook-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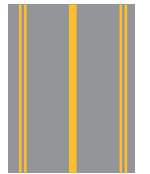
정차금지지대 표지 위에 멈추지
않도록 교차로가 혼잡할 때는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안전지대 표지가 있는
곳에 자동차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빨간색 실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선이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단 노란색 실선은 탄력적 허용)



< 이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름: _____

획득 점수: _____

점

느낀 점: _____

한 줄 다짐: _____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스스로 풀어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47쪽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
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앞차와 뒤차의 시선 차이

앞차 V S 뒤차

교통이 정체된 도로 위. 누구나 조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위치에 따라 첨예하게 달라지는
운전자들의 입장을 보고 각 주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자.

글 편집실

앞차 운전자 A씨



괜히 안전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막히는 게 제 탓은 아니죠. 아무리 막혀도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 의무 아닌가요?
바짝 붙는다고 도로가 뚫리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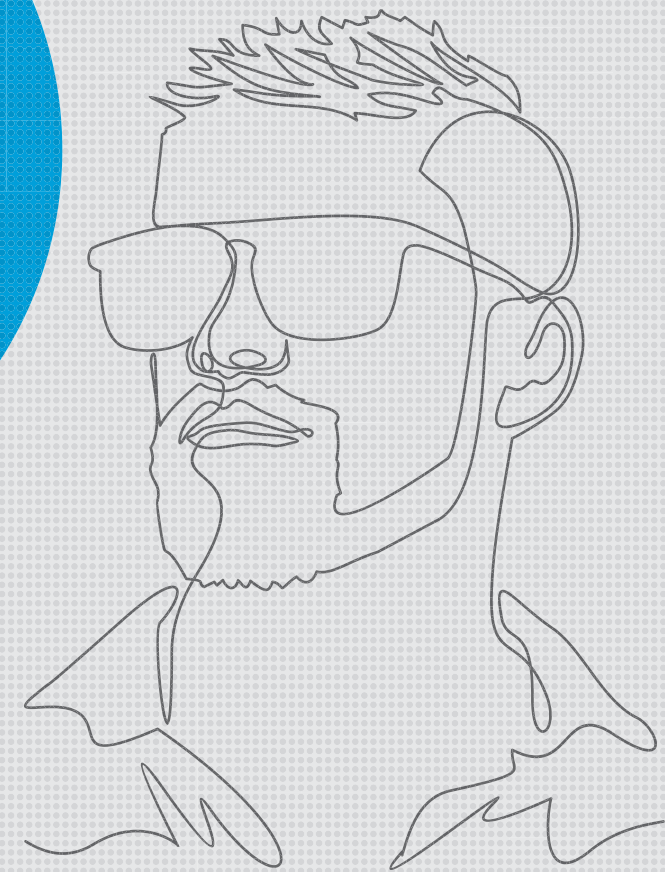
실내 후사경에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깜박
이면 저까지 불안해져요.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차는 뺨 뚫린 도로에서부터 너무 천천히
움직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바짝 붙었어요.
그러면 눈치를 줘야죠. 다들 바쁘데 혼자 여유
 있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거라고요!

옆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까지 모조리 다
 끼워주니까 이 차로만 계속 늦어지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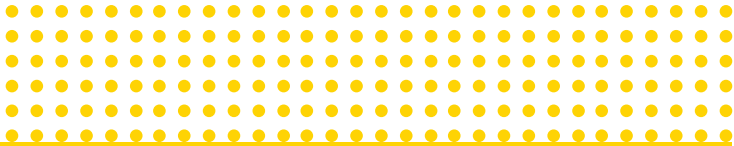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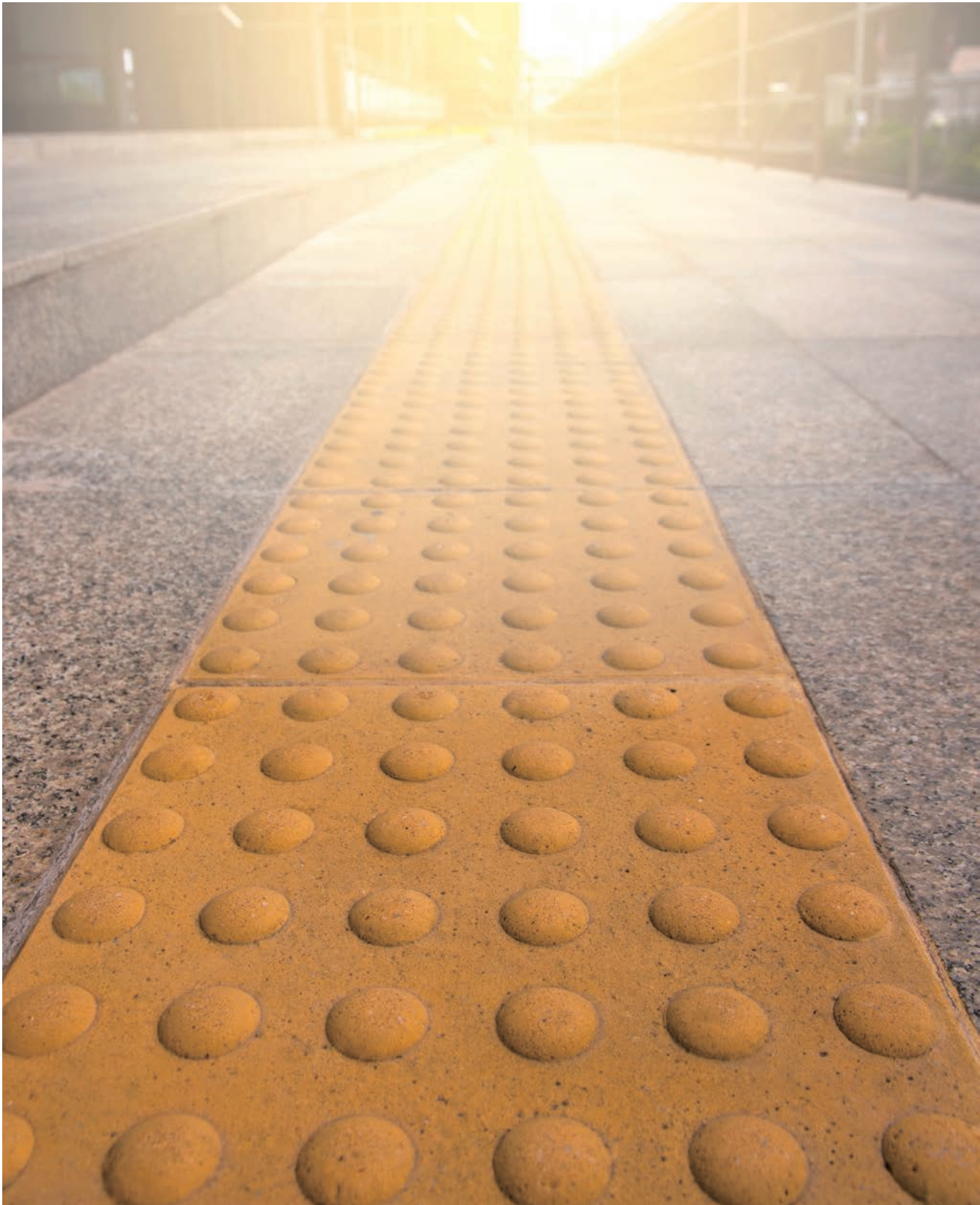
뒤차 운전자 B씨



“

나와 다른 운전자의 입장을
배려하면 교통사고도,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앞 노란 바닥의 정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점자블록

평소 길을 걷다 보면 노란색 블록을 마주하게 된다. 이 바닥 시설물의 정체는 바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도로의 방향을 알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글 편집실

무슨 뜻일까?

점자블록에 담긴 의미



토막 상식

‘선형 점자블록’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거리까지의 보행 방향을 표시하며, 계속 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점형 점자블록’은 블록 안에 36개 원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작점이나 도착점, 방향이 바뀌는 곳을 알려주며 우선 걸음을 멈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형



점형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유도블록’, 또는 ‘안전유도블록’이라고 한다. 길에서 가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크게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표지판인 셈이다. 점자블록이 단순히 모양으로 의미를 전한다면 굳이 노란색일 필요가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시각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전혀 볼 수 없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뉘진다. 이때 시력이 0.04 미만인 시각장애인은 빛과 색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점자블록은 저시력자의 눈에도 잘 띄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색은 파장이 길고 주목도가 높아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이다. 시야가 좁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이 쉽게 점자블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각장애인 중 전맹의 비율이 12%에

불과한 사실을 생각하면 노란색 점자블록은 폭넓게 시각장애인을 포괄하는 방안이 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전체 색상을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쩌면 나도?

무신경이 만든 불편함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표지판이다. 하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훼손되거나 아예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먼저, 점자블록을 횡단보도 앞이나 장애물 앞에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해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점자블록을 따라 멈추더라도 위험물과 너무 가까워 사고 위험이 큰 경우다. 또, 보행기준선으로 사



용되는 선형 점자블록의 폭이 너무 좁거나 장애물과 가깝게 설치돼 있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점자블록을 시공할 때는 도로와 평행하게 선형 점자블록으로 보행기준선을 만들고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를 잘 살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점자블록은 길을 걷는 기준이 되는 표시이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되거나 깨진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시각장애인들이 길 위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점자블록은 돌출 돌기의 높이가 부분적으로 2mm 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는 점자블록이 방치된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점자블록 위에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주·정차하거나 노점상 등이 가리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린 것과 다름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도로

교통약자와의 동행



토막 상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령이다. 지난해 9월 개정에 따라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 또는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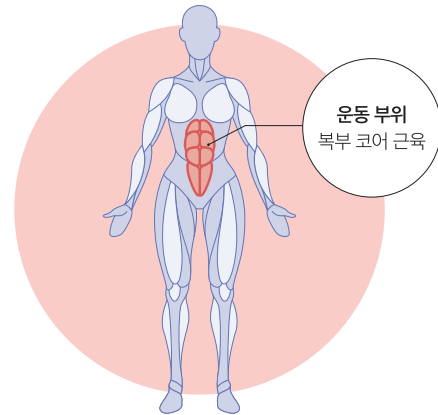
이런 불편이 지난해 9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점자블록을 막으면 동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자율적인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건물 바닥, 도로, 승강장 등 일반 보도블록 사이에 설치된다. 시각장애인 역시 우리와 함께 이동하는 평등한 도로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그저 ‘몰랐다’는 말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피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없길 바라본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동작 배우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속 근육까지 탄탄하게 관리하는
필라테스가 인기다. 잦은 운전으로 피로가 쌓인 몸을 위해
필라테스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필라테스 기본 동작을 배워보자.

강사: 한진영 사진: 남윤중(studio51) 장소제공: 지니필라테스



첫 번째 동작 데드 버그



강사의 도움말

- 허리가 바닥에 붙지 않고 뜨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복부로 누르는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 다리를 내릴 때 복부에 힘을 쥐도 허리가 뜨면 무리하지 말고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 주세요.
-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게 어색한 사람은 수건을 허리 밑에 두고 진행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수건을 누르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① 준비 자세(테이블 탑)

- 바닥에 누워 양팔은 몸통 옆으로 붙이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둔다.
- 두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고 호흡을 뱃으며 고관절 위에 무릎, 무릎 높이에 발목이 오도록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린다. (고관절-무릎-발목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유지)
-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를 바닥으로 천천히 누르며 자세를 유지한다.

② 동작 준비하기

- 테이블 탑 자세를 유지하며 양팔을 천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린다.
- 이때 팔은 천장을 향해 길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늘려준다.

③ 본 동작 따라 하기

- 입으로 호흡을 뱃으며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길게 뻗으며 바닥으로 천천히 내린다.
- 동작하는 동안 복부를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유지해 허리가 뜨지 않도록 유의한다.
- 코로 호흡을 마시며 내렸던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다시 들어 올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 왼팔과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8회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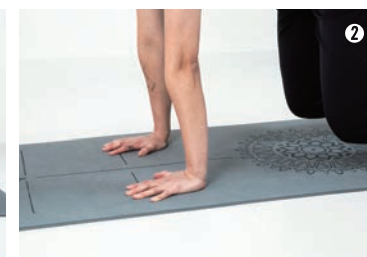
두 번째 동작

네 발 기기 니 오프(무릎 들기)



강사의 도움말

-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구리 손처럼 넓게 펼쳐 바닥을 짚은 뒤, 엄지와 검지 사이가 뜨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끝으로 바닥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 동작할 때는 몸통이 통나무가 됐다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① 준비 자세

- 양팔과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 엎드린다.
- 어깨 아래에 손목이, 골반 아래에 무릎이 내려오도록 정렬한다.

② 동작 전 주의 사항

-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바닥 전체에 힘을 분산시킨다.
-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고정한다.

③ 본 동작 따라 하기

- 복부를 등 방향으로 밀어내며 무릎을 바닥에서 띄운다.
- 어깨가 뒤로 밀려서 엉덩이가 솟지 않도록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
-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뒤 준비 자세로 돌아온다. (8회 반복)

세 번째 동작

에이비 프렙



강사의 도움말

- 역자로 팔을 들어 올리지 말고 복부 힘으로 상체를 올려 주세요. 손끝은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길게 뻗어주세요.
- 복부의 힘이 약할 경우 엉덩이가 함께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바닥을 엉덩이에서 더 멀리 떨어뜨리고, 하복부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상복부만 접어서 올라오도록 해보세요.
-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처럼 발목을 고정해 보세요.



① 준비 자세

- 누워서 팔은 몸통 옆으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 무릎을 접어 엉덩이와 발 크기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 발바닥을 놓는다.
-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를 바닥으로 눌러내는 힘을 유지한다.

② 동작 전 주의 사항

- 머리를 들어 올릴 때는 한 번에 급하게 들지 않는다.

③ 본 동작 따라 하기

- 목을 길게 뻗으며 정수리부터 척추를 하나씩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린다. 이때 양팔과 손끝은 발끝 방향으로 길게 뻗는다.
- 시선은 무릎 사이를 바라보고, 고개를 따라 가능하면 날개뼈 부위까지 들어 올린다.
- 어깨와 양 팔이 평행을 이루면 5초간 유지한 뒤, 말아 올린 척추를 차례대로 바닥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준비 자세로 돌아온다. (8회 반복)



대설주의보·폭설에 따른 눈길 안전운전

눈이 내리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합니다.
눈길 안전수칙을 살펴볼까요?



자동차 배터리 방전 대처 및 예방법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데다 낮은 기온으로
성능까지 떨어지는 겨울, 배터리 방전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겨울철 이륜차 관리는 이렇게!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 더욱 취약한 이륜차.
철저한 관리로 사고 예방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페이스북 활용법

페이스북 정보 이렇게 하면
안전이 가까워집니다!



자동차 검용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지난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자동차 검용’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하이패스 오작동 시 통행료 납부는?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내지 못했을 때 미납 요금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전동킥보드, 사실은... 차였다!

우리가 몰랐던 전동킥보드 상식을 알아볼까요?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체험교육

청소년과 함께한 다양한 교통안전 체험현장을
만나 보세요!

1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자료 배포

-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 한국도로교통공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외국어로 제작한 자료를 지난 12월 31일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관련 법규와 올바른 이용 방법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최근 관광 등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규에 따른 안전운전 수칙을 전달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직진을 두 번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카드뉴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한국어와 국내 도로교통법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카드뉴스를 3개 언어로 제작했다.”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회전 차로 ‘미끄럼 방지 홈(그루빙)’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 미끄럼 방지 홈 설치 지점의 주행속도 최대 10.28% 감속 효과 확인



진주시 희망교사거리 횡방향 그루빙 설치 전(좌)·후(우) 현장 사진

우회전 전용차로에 ‘미끄럼 방지 홈(그루빙)’을 시범 설치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가 최대 10.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에 미끄럼 방지 홈을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우회전 전용차로 횡방향 그루빙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남 창원특례시·진주시·거제시, 경찰서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먼저 우회전 교통량이 많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지점을 선정하고, 우회전 전용차로의 노면에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홈을 내어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량의 감속을 유도했다. 또한 타이어가 홈을 지나며 발생하는 마찰음으로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석전교사거리 2개 지점에 미끄럼 방지 홈을 설치하고, 진주시는 희망교사거리, 진양교사거리 2개 지점, 거제시는 4번교차로, 19번교차로 2개 지점에 미끄럼 방지 홈과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했다.

설치 전·후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량 통행속도는 최대 10.28% 감소(46.11km/h → 41.37km/h), △보행자 차량인식률은 최대 46.5%p 향상(9.09% → 55.56%)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협업하여 설치 지점을 늘리는 등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신속 출동 가능

-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표준규격 제정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표준규격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지역 간 출동 시에도 우선신호 확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역 경계를 넘더라도 광역 신호제어로 우선신호를 받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제안한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제정됐다.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은 긴급차량이 지역 간 단절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운행을 제어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다.

공단은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방식(구성, 정보처리절차, 연계 방식 등)의 규격을 통일했다.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제어방식으로 우선신호가 작동하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조를 받아 개발했다.

긴급차량 단말기와 교차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광역출동체계를 지원한다. 또 지역 간 호환성을 확보해 대규모 합동 출동이 가능해져 출동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개발한 표준 규격으로 긴급차량이 지역 단절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다”라며, “국민 생명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표준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격 제정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8개 공동연구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메타빌드, 네오패픽, 울산테크노파크, 케이에이알)이 추진했다.

교통안전의 의미를 담은 전용 서체 ‘KOROAD체’ 개발

-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을 통해 무료 배포

| | |
|----------------|--|
| KOROAD체 Bold |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함께하는 안전과 소통, 실천하는 책임과 열정 |
| KOROAD체 Medium |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함께하는 안전과 소통, 실천하는 책임과 열정 |
| KOROAD체 Light |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함께하는 안전과 소통, 실천하는 책임과 열정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KOROAD체’ 3종



신호등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체’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을 기념하며 교통안전의 의미를 담은 전용서체를 무료 배포했다.

공단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라 기관 상징(CI)을 변경하며 전용 서체를 함께 개발했다. 서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영문 약칭인 ‘코로드(KOROAD)’로 이름이 지어졌으며 △KOROAD체 Bold(볼드) △KOROAD체 Medium(미디엄) △KOROAD체 Light(라이트)로 총 3종으로 제작됐다. 각 서체는 한글 2,780자, 영문 94자, 심볼 986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의 전용 서체 3종은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도약의 표현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국민의 교통안전에 위한 공단의 노력을 친근하게 전한다는 의미로 글자의 모서리 일부를 부드럽게 굴려서 표현했다. ○(이음)의 형태는 신호등에서 영감을 얻어 정

원형으로 디자인했다.

KOROAD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 공단소개-CI/캐릭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Windows OS)에서 문서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트루타입(TTF) 파일, 맥 운영체제(Mac OS) 및 그래픽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오픈타입(OTF) 파일 두 종류가 제공된다. 무료 배포 서체로 인쇄물, 광고물 등 상업적 용도로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서체를 판매하거나 왜곡, 변형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KOROAD체 개발 과정에서 서체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며, “KOROAD체를 사용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한 번씩 떠올려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변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1. '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 10대 시책'),
법제처 보도자료 (2024.12.27.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오는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차 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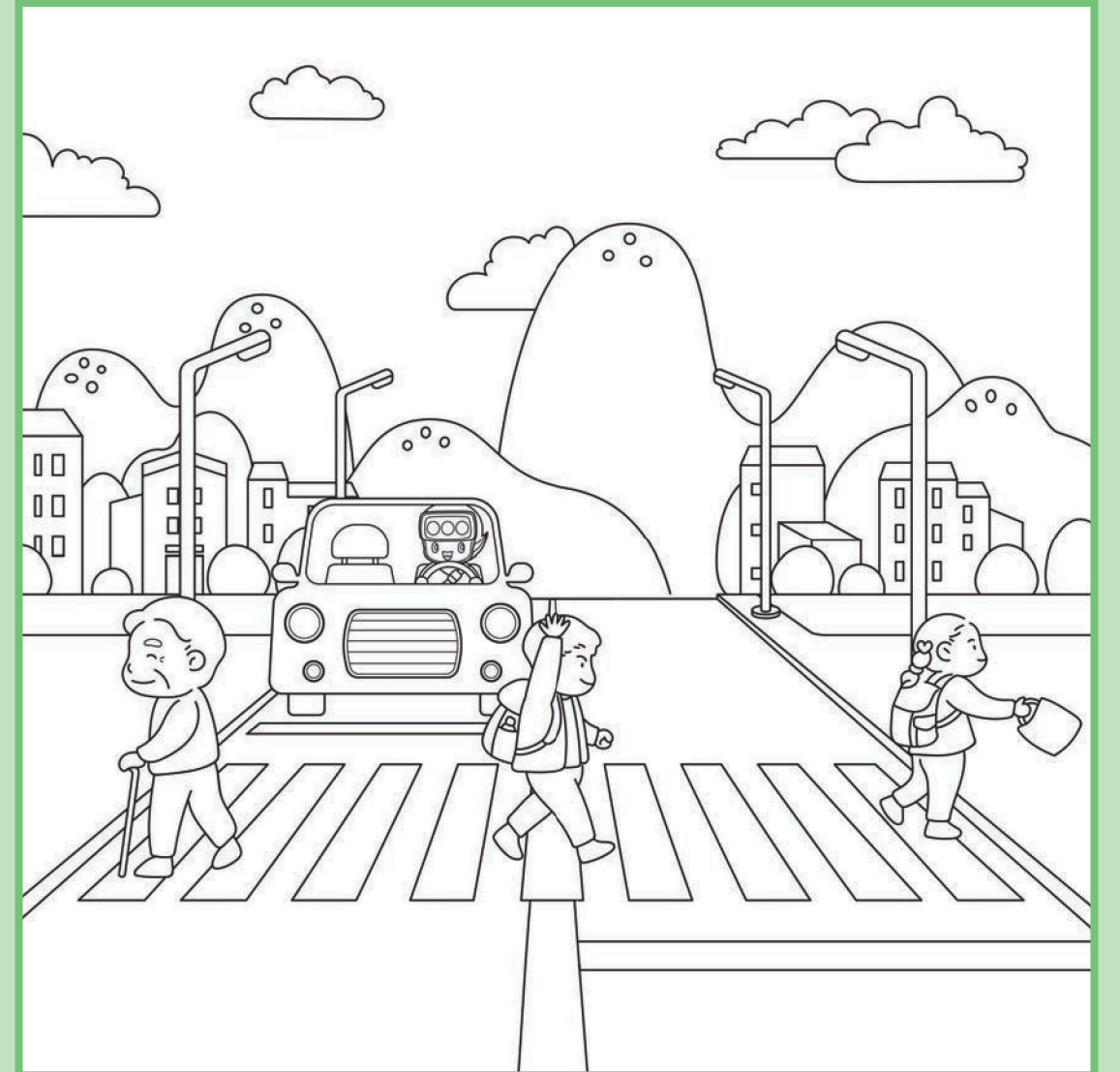
3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그동안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감면한도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다.

어린이 전용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으로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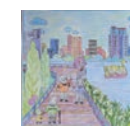
어린이들로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지난 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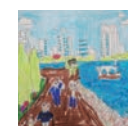
김*자(5714)



박*인(3778)



이*원(4535)



이*호(8814)



정*태(9574)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스크트 호동이는 교통안전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2025년 2월 13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호동이 인형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 보내주시는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KOROAD 독자 의견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돌아보길

'돌아보길' 코너의 작가 글을 잘 읽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Live in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도 또 벅차이처럼 될까 봐 내 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또한 미래도 대비하는 적당하고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서*인(6172)



이맘때, 이 사고

이번 호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와 고령자 보행에 대한 기획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인의 조모께서 20년 전 새벽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운명하셨는데 이번에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보행자는 보행자로서 조심하고, 운전자는 더욱 세심한 전방 주의와 안전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홍*호(0757)



어디로 갈까

아이들과 2024년 한 해를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호 기사에서 해님이 명소 소개를 인상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진도로 목적지를 정하고 진도 타워에서 추억의 해님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8033)



죄와 벌

무단횡단의 최후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단횡단의 교통사고 사망의 허망함과 가족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꼭 신호등의 신호에 맞게 건너야 함을 다짐해 보네요.

차*정(8618)



나의 사고 일지

이면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당한 독자의 사례를 읽으면서, 몇 년 전 저도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던 경험이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소개된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경(9135)

「신호등」 모의고사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은 2025년 「신호등」 1+2월호에 숨어 있습니다

Q1. 1. 2025년도 「신호등」은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호 캠페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초보운전자를 배려해 주세요. ② 능숙한 운전자도 조심하세요.
③ 초보운전자는 피해 가세요. ④ 어린이를 보호해 주세요.

Q2. 이번 호 내 차 사용법에 소개된 자동차 고장 진단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촉감 ② 정기 점검 ③ 소리 ④ 냄새

Q3. 시각 장애인은 ○○○○을 따라 보행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점자표지 ② 노란 바닥 ③ 전용 구역 ④ 점자블록

참여 방법 2025년 2월 13일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gbo@koroad.or.kr

과월호 당첨자 안내

11+12월호 중간 점검

정답 Q1. ② Q2. ③ Q3. ②

강*빈(6788), 김*락(4672), 김*미(3636), 김*희(5610), 김*현(7526), 김*영(9132), 김*용(1249), 박*순(7658), 박*진(6908), 박*옥(0913), 방*옥(2088), 서*영(9853), 서*리(7212), 산*록(5122), 양*인(3279), 이*능(9723), 이*점(2019), 이*상(8139), 이*민(2376), 이*훈(3867), 최*훈(8312), 최*식(7476), 황*화(5259)

11+12월호 신호등 모의고사

정답 Q1. ① 산책길 Q2. ③폭우 대처법 Q3. ③윤봉길

강*희(1075), 강*수(6701), 강*제(9051), 고*일(0100), 고*한(0452), 김*경(8033), 나*숙(5051), 박*숙(0748), 박*선(5100), 서*민(8666), 신*훈(5644), 우*형(7526), 이*운(4535), 이*정(9500), 이*경(7142), 이*관(3091), 장*봉(5442), 장*동(7526), 전*성(9909), 최*희(9876), 최*지(8302), 최*원(8588), 황*홍(5306)

11+12월호 교통안전 실천 서약서

김*겸(8630), 박*성(9326), 방*녀(0725), 이*현(3878), 이*숙(2413), 이*윤(4535), 임*욱(5331), 조*석(6499), 허*(2685)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시길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신호등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신호등」은 매 홀수달 초순에 발행됩니다.

• 구독 신청 및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해지·주소 변경 방법

① 독자엽서

②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호등」 안내

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신호등」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만나 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신호등」을 만나는 방법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밀리의 서재에서 「신호등」을 검색하세요.

‘무료’로 이북을 구매하시면, 전자책으로 신호등의 모든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북 보는 방법



특별이벤트 당첨자 허*득(hjd8751), 고*미(8732), 김*미(4443), 유*완(0822), 김*(9000)



제 2024 - 23 호

2025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시행 재공고

「도로교통법」제106조 및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등 규정에 의한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응시 자격(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07조)

가. 학과강사 및 기능강사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제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나. 기능검정원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다. 공통요건: 나이·학력 제한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제5조의5(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죄)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07조 제5항에 따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연수교육 수료일 기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 기능교육(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기능검정)을 한 경우
- ▶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

2. 시험 과목

가. (1차) 필기시험(1과목 당 50문제 및 시험시간 60분) ※ 컴퓨터 활용한 시험(CBT)

| 교시(시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
| 1교시(60분)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교통안전수칙 |
| 2교시(60분) | 전문학원 관계법령 | 전문학원 관계법령 | 전문학원 관계법령 |
| 3교시(60분) | 학과교육 실시요령 | 기능교육 실시요령 | 기능검정 실시요령 |

- 응시생별 매 교시 문제(답안지) 제출 후 10분간 휴식 시간 부여
- ※ 휴식 시간(1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다음 교시 시험이 시작되며 시험 시작후 10분간 답안 입력이 없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휴식 시간 중이라도 시험장 내에서는 관련 교재를 보거나 휴대폰 사용 등 불가함
- ▶ 휴식 시간 사용 여부는 응시생의 선택적 사항으로 휴식 없이 다음 교시 진행도 가능
- ▶ 문제(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 도중 퇴실은 불가함(퇴실 시 실격)
- 자격시험 중(별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응시 횟수는 회차별 1회만 가능

나. (2차) 실기시험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 부여
- ※ 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정한 일정에만 응시 가능하며, 실기시험 당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1종 보통(자동차) 및 연습면허 제외)

다. 시험 일부 면제

-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받은(소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을 면제함

3. 합격 기준(공통)

가. (1차)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2차) 실기시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4. 합격자 발표

가. (1차) 필기시험: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 발표

나. (2차) 실기시험: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 발표

5. 응시관련 제출서류 및 수수료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컬러사진(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학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나. 응시수수료: 필기시험 15,000원, 기능시험(도로주행) 30,000원
- 공단 운전면허수수료 징수 규칙에 따라 공고 이후 수수료 변경될 수 있음
- 응시 취소 시 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름

다.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6. 자격시험 일정 및 접수 안내

가. 응시접수(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온라인(PC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접수 불가함) 및 시험장 방문
- <온라인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시험장 방문 접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가능(시스템 운영 관계상 본인이 방문한 시험장 외 타 시험장 응시 접수는 불가함)
- ※ 실기시험의 접수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시험장에만 응시접수 가능

- 접수기간: (필기) 아래 접수기간 참고
(실기) 희망 시험일을 선택 후 해당 시험일 6일 전까지 접수해야 함
- ▶ 일정변경은 기 접수한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서만 다른 날로 변경 가능
- ▶ 일정변경을 희망하시는 날에 접수가 마감된 경우 별도로 추가 접수는 하지 않음

| 구 분 | (1차) 필기시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 | | | (2차) 실기시험 |
|-----------|---------------------------------|-----------------------|-----------------------------------|--|
| 학 과 강 사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3. 11.(화)
3. 18.(화)
6. 10.(화)
6. 17.(화)
10. 14.(화)
10. 21.(화) |
| | 1회차 | 1. 21.(화) ~ 1. 23.(목) | 2. 4.(화) / 2. 11.(화) | |
| | 2회차 | 4. 22.(화) ~ 4. 24.(목) | 5. 13.(화) / 5. 20.(화) | |
| | 3회차 | 8. 19.(화) ~ 8. 21.(목) | 9. 9.(화) / 9. 16.(화) | |
| 기 능 강 사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3. 12.(수)
3. 19.(수)
6. 11.(수)
6. 18.(수)
10. 15.(수)
10. 22.(수)
10. 29.(수) |
| | 1회차 | 1. 21.(화) ~ 1. 23.(목) | 2. 5.(수) / 2. 12.(수) / 2. 19.(수) | |
| | 2회차 | 4. 22.(화) ~ 4. 24.(목) | 5. 7.(수) / 5. 14.(수) / 5. 21.(수) | |
| | 3회차 | 8. 19.(화) ~ 8. 21.(목) | 9. 10.(수) / 9. 17.(수) / 9. 24.(수) | |
| 기 능 검 정 원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3. 13.(목)
3. 20.(목)
6. 12.(목)
6. 19.(목)
10. 16.(목)
10. 23.(목) |
| | 1회차 | 1. 21.(화) ~ 1. 23.(목) | 2. 6.(목) / 2. 13.(목) | |
| | 2회차 | 4. 22.(화) ~ 4. 24.(목) | 5. 15.(목) / 5. 22.(목) | |
| | 3회차 | 8. 19.(화) ~ 8. 21.(목) | 9. 11.(목) / 9. 18.(목) | |

나. 필기 시험시간(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동일)

(오전) 10:00 ~ 11:00 <시험 일부 면제자>

(오후) 13:30 ~ 16:50 <일반 응시자>

다. 실기 시험시간: 시험장별 시험시간이 상이하오니 접수 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

7. 유의 사항

- 가. 우리 공단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필기 및 실기시험은 각 시험장 수용인원에 따라 응시인원 제한 있음(선착순 접수)
- 필기 응시인원은 회차별 첫 필기시험일 20일 전에 각 시험장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
- 다.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함
- 라. 응시생은 신분증·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 진행과 관련된 안내를 듣고 신분확인 완료(시험시작 전까지 신분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험 응시불가)불합격 처리되며 응시취소 및 일정변경 불가함
- 마. 본 시험운영 및 기준 등 관련되어 도로교통법령 개정(시행) 시 개정된 법령에 따름
- 바.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까지 이수해야만 자격증 취득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자만이 필기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자격증 교부 비용은 본인 부담) ※ 연수교육 접수 문의는 하단 전화번호 참고

8.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주소

| 지 역 | 운전면허시험장(주 소) | 지 역 | 운전면허시험장(주 소) |
|-----|----------------------|-----|---------------------------|
| 서 울 | 강 남(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 강 원 | 춘 천(산북읍 산북로 247) |
| | 도 봉(노원구 동일로 1449) | | 강 릉(사천면 중앙서로 464) |
| | 강 서(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 | 원 주(호저면 사제로 596) |
| | 서 부(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 | 대 백(수아발길 166) |
| 부 산 | 북 부(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 충 북 | 청 주(상당구 가덕면 교육일로 131-2) |
| | 남 부(남구 용호로 16) | | 충 주(대가주1길 16) |
| 대 구 | 대 구(북구 태암남로 38) | 충 남 | 미 산(오가면 국사봉로 500) |
| | 인 천(남동구 아람대로 1247) | | 전 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
| 울 산 | 울 산(울주군 삼북면 봉화로 342) | 전 남 | 전 남(나주시 내영산2길 49) |
| | | | 광 양(광양읍 대학로 11) |
| 대 전 | 대 전(동구 산서로1660번길 90) | 경 북 | 문 경(신기공단1길 12) |
| | 용 인(기흥구 용구대로 2267) | | 포 함(남구 오천을 병천로 656) |
| 경 기 | 안 산(단원구 순환로 352) | 경 남 | 마 산(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7) |
| | 의정부(금오로109번길 55) | | 제 주(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

9.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자격시험(면허시험처) | 연수교육(교육운영처) |
|------------------|-------------|----------------|----------------|
| www.koroad.or.kr | ☎ 1577-1120 | ☎ 052-215-1629 | ☎ 033-749-5318 |

한 국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